

취업모의 취업특성별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지원 방안*

김은설¹⁾

요약

본 연구는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취업모의 특성별로 육아 실태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보육실태조사 참여 가구의 34%인 866 취업모 가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크고 정부 육아비용지원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52.6%가 불만이었는데 소득이 높고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불만율이 높았다. 육아지원정책으로 소득이 높은 취업모일수록 국공립시설 확충과 보육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고, 소득이 낮은 경우일수록 보육비 지원 확대와 양육비 현금 지원에 대한 희망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높고 전문직일수록 자녀를 맡길만한 곳이 없다는 인식이 많았고 조부모에 양육을 의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관련해 보면, 소득이 낮고 근무시간이 길며 단순노무직일수록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취업모의 18%가 토요일에도 교육·보육을 이용하고 수입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육아지원기관의 시설설비에 대해 불만족이 컸다.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은 평균 216,000원 정도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은 더 컸으며 가구소득대비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의 비율에서는 평균 7.1%였다. 따라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치와 저소득층 영아의 가정내 육아지원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상업지역, 관광 관련 사업 종사 취업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말 및 야간보육을 확충하고 대체교사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취업모, 취업특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 본 논문은 2010년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아동 가구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과 육구-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I. 서론

보육은 취업모라는 대상을 배제하고는 결코 논의될 수 없는 문제이다. 보육서비스의 시초가 영유아자녀를 두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취업한 직장 여성들에게 양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생각한다면, 현재 취업모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보육정책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구상하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취업모가 가진 직업특성에 따라 보육 또는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한 비용 지불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최근 정부는 취업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보육료 지원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혜택을 늘림으로써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던 취업모에게 불리한 체계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0; 서문희 외, 2008). 그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두 사람의 소득을 그대로 합쳐 가구 총소득을 계산해 버림으로써 교육·보육료 지원대상이 되기는 어렵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부부 한 쪽의 소득을 일부(25%) 감해 주고 총소득 산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수혜 자격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토록 한 것은 복지제도의 선진화를 향한 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자료를 활용한 「2009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서문희 외, 2009)에서는 취업모들의 육아 특징을 미취업모 집단과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취업모와 자녀의 양육 특성을 비교한 연구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결과는 별로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의 아동에 비해 또래 유능감이 더 높거나(문혁준, 2009), 취업모 가정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감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김민정, 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유아 자녀에 있어 기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방경숙, 2004)나 취업모 가정 자녀가 정서적 안정감이 낮다는 결과(도미향, 2006)는 어머니의 취업이라는 변인이 상황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취업모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보다 그 직업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해 볼 필요성을 갖게 된다. 즉 취업모는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너무도 다양한 삶의 형식들을 가졌다. 출퇴근 시각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근무 요구 시간이 다른 것이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그들의 육아 현실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모가 가진 직업적 특징

들을 분류하여 취업특성을 밝히고 이에 따른 육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 수립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고려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취업모는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취업특성, 소득 등의 여러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취업모의 특성별로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는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취업모 특성별로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현황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4. 취업모 특성별로 육아지원서비스에 소비하는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5.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09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일부로서, 전체 2,459가구 데이터 중 영유아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취업모)를 선택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직이 아닌 경우, 즉 휴직 중이거나 학생인 경우 등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히 조사 시점에서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모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866 취업모 가구가 본 연구 전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2. 사용 변수 및 분석 방법

취업모의 취업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변인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 직업유형, 종사상 위치, 근로형태, 일일근무시간 등 4 가지를 포함하였다. 직업유형은 2009 전국 보육실태조사(이하 원분석)의 '경제활동분야'로 구분했던 14개의 직업구분을 통합하여 분류하는 방식을 거쳐 총 6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종사상의 위치도 원 분석에서 사례수가 많지 않았던 고용주를 자영업자와 통합하여 하나의 구분으로 만듦으로써 전체적으로 5개의 위치로 구분되었다. 근로형태는 원분석과 동일하게 4가지를 취하였고 일일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3개의 급간으로 구분하여 급간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독립변수로 사용된 기본적인 변수들의 구분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그 외, 취업모의 특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 학력, 거주 지역, 월소득 수준, 부부 합산소득이 가구소득 등이 필요한 경우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변수들에 따라 취업모의 응답들을 교차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완적으로 소수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경우는 직업, 종사상위치, 학력, 근로형태 등을 하위구분에 따라 더미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취업모의 취업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의 구분

변수	직업 유형	종사상 위치	일일근무시간	근로형태
구분	1. 고위임원, 관리자, 전문가	1. 자영업자, 고용주	1. 4시간 이하	1. 규칙적 출퇴근
	2. 기술공, 준전문가	2. 상용근로자	2. 5~9시간	2. 불규칙 출퇴근
	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3. 임시근로자	3. 10시간 이상	3. 재택근무
	4.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4. 일용근로자		4. 농어민
	5. 농업,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5. 무급가족종사자		
	6. 기능원, 단순노무종사자			

Ⅲ. 결과 및 해석

1.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2009 보육실태조사에 포함된 영유아 부모인 취업모는 총 866명이다. 이들은 보육실태조사에서 영유아가구로 분류된 2,554가구 중 영유아의 어머니가 어떤 종류이든 일을 하고 있는 취업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무직, 휴직, 주부 제외)로, 전체 영유아 가구 중 34%가량의 어머니가 일을 하는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취업모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취업모의 인구학적 특성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평균 연령은 33.9세(표준편차 4.2세)로 조사되었다. 즉 30대 초중반에 걸쳐 많은 여성들이 영유아 자녀를 기르면서 일을 하느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분포상에서 최소연령은 22세였고 가장 연령이 높은 경우는 51세였다.

〈표 2〉 영유아자녀를 둔 취업모의 평균 연령

단위: 명, 세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취업모 연령	866	22	51	33.86	4.220

영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으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인 37.2%가 ‘고등학교 졸업’이었고 33.1%는 ‘대학교 졸업’, 21.6%는 전문대 등 ‘초급대학 졸업’,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47.2%, 중소도시 35.9%, 읍면이 16.9%로 조사되어, 83%정도의 취업모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영유아자녀를 둔 취업모의 학력 및 거주 지역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학력	무학	0.2
	초등졸	0.4
	중졸	2.3
	고졸	37.2
	초대졸	21.6
	대졸	33.1
	대학원	5.3
	계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35.9
읍면		16.9
계		100.0

나. 취업모의 취업 특성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29.9%)이 사무종사자(공무원, 교사, 직업군인 등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6.1%의 비율을 보인 서비스업이나 판매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과반수 이상이 이 두 유형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순으로 기술공·준전문가(17%), 고위임원·관리자·전문가(12.7%) 직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종사상 위치로 구분해보면, 상용근로자가 51.8%정도이고 12.0%가 자영업자나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64%가량이 고용주나 안정적 위

치의 근로자이고,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면 전체 영유아 자녀를 가진 취업모의 25.3%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영유아자녀를 둔 취업모의 직업, 종사상 위치 및 근로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직업	고위임원, 관리자, 전문가	12.7
	기술공, 준전문가	17.0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9.9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26.1
	농업,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2.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12.1
	계	100.0
종사상 위치	자영업자, 고용주	12.0
	상용근로자	51.8
	임시근로자	16.0
	일용근로자	9.3
	무급가족종사자	10.7
계	100.0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82.9
	불규칙하게 출퇴근	12.2
	재택근무	2.7
	농어민	2.2
계	100.0	
일일 근무 시간	4시간 이하	9.5
	5~9시간	71.9
	10시간 이상	18.6
	계	100.0

근로형태별로 보면,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82.9%이고 재택근무는 2.7%에 지나지 않았다. 일일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5~9 시간이 71.9%로 가장 많았고, 4시간 이하는 9.5%, 10시간 이상은 18.6%로 조사되어, 10명 중 2명가량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는 취업모임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영유아인 점을 감안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 해결이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소득 수준을 조사해 보면, 100만원 미만이 23.0%로 가장 많고 100~15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이 각각 19.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50~200만원 미만이 15.2%였으므로, 100~200만원 미만 수준은 총 35.0%여서 백단위로 구분해 본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300만원 이상은 10.7%였고 가내 사업 등 무급 종사자는 1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월수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무급	99	11.5
100만원 미만	199	23.0
100~150만원 미만	171	19.8
150~200만원 미만	132	15.2
200~300만원 미만	171	19.8
300만원 이상	93	10.7
계	866	100.0

영유아 자녀를 기르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가정 내 가구 소득(부부합산액)을 100만원 단위로 조사해 보면, 300~400만원 사이가 22.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다. 다음으로 21.6%의 가구가 속해있는 200~300만원 미만 범위, 16.8%의 비율이 나왔던 400~500만원 범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체 취업모 가구의 60%정도가 200~500만원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00만원이 넘는 가구는 13.4%, 그리고 200만원 이하 가구는 14.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 평균은 384만 5천원(표준편차 210만 4천원)이었고 표집내 최대치는 2,000만원이었다.

〈표 6〉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 가정의 가구 소득(월 단위)

단위: 명, %, 천원

구분	사례수	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100만원 미만	14	1.8				
100~200만원 미만	94	12.4				
200~300만원 미만	164	21.6				
300~400만원 미만	169	22.3				
400~500만원 미만	127	16.8				
500~600만원 미만	88	11.7	384.5	210.4	0	2,000
600~700만원 미만	47	6.3				
700~800만원 미만	23	3.0				
800~900만원 미만	9	1.2				
900~1000만원미만	7	.9				
1000만원 이상	15	2.0				
계	758	100.0				

2. 취업모 특성별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취업모가 종사하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 육아에 대한 인식과 육아실태가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적 특성은 양육과 관련한 취업모의 현황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직종, 근로 시간과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

먼저 취업모들이 느끼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보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30.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취업모들에게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므로 이 항목을 번외로 두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는 ‘육아비용’이 21.2%였고 ‘맡길 곳이 없다’라는 응답도 20.1%로 조사되었다. 비용이 문제가 되는 취업모의 비율과 어린이집의 부족을 느끼는 취업모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육아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즉, 신뢰감을 갖고 편리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이 더욱 많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다른 수요자는 육아비용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는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취업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직업유형별로 보면, ‘시간이 없음’만 제외하면, 관리자나 전문가 직업 집단의 경우 ‘맡길 곳이 없다’는데 가장 높은 응답률(26.6%)을 보인 반면, 서비스종사자나 판매직 직업 집단은 ‘육아비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24.6%). 한편 특이한 점은 농어업, 임업 종사자들은 ‘어려움이 없다’에 42.1%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 직업 집단의 경우 양육비용지원이 비교적 많고 도시에 비해 사교육 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육아비용에 대해서는 10%가량만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21%가 넘는 수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의견도 보였다.

근로시간 유형별로 보면, 일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모는 ‘시간없음’을 55.3%가 선택한 반면, 육아비용이나 맡길 곳 없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4시간 이하 반일 근무를 하는 취업모의 경우는 35.8%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을 하여 시간면으로나 비용면에서의 애로비율이 낮았다. 반면 근로형태 때문인지 맡길 곳이 없다고 느끼는 비율은 평균이상이었다.

수입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취업모의 수입이 100

만원 미만인 집단이 육아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고 수입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낮아진다. 반면 ‘맡길 곳 없음’과 ‘시간 없음’은 수입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취업모가 느끼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수)

구 분	육아 비용	맡길 곳 없음	이용 시간 부적절	시간 없음	도움 받을 곳 없음	어려움 없음	계	$\chi^2(df)$
전체	21.2	20.1	15.0	30.8	2.8	9.5	100(859)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18.3	26.6	12.8	29.4	2.8	10.1	100(109)	
기술공, 준전문가	21.9	19.9	21.9	28.1	0.7	7.5	100(146)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1.4	19.5	15.2	32.7	4.7	6.6	100(257)	61.3(25)**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24.6	15.6	12.5	33.0	1.8	10.7	100(224)	
농업, 임업, 어업직	10.5	21.1	5.3	21.1	0	42.1	100(19)	
기능원, 단순노무직	17.3	25.0	14.4	28.8	3.8	10.6	100(104)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16.0	23.5	17.3	6.2	1.2	35.8	100(81)	36.4(10)***
5~9시간	24.6	21.2	15.4	27.9	3.5	7.2	100(623)	
10시간 이상	10.6	13.7	11.8	55.3	1.2	6.2	100(161)	
수입수준								
무급	18.0	21.0	10.0	28.0	0	20.0	100(100)	
100만원 미만	29.6	17.1	17.6	22.1	1.5	12.1	100(199)	
100~150만원 미만	25.1	18.1	16.4	28.1	5.3	7.0	100(171)	101.5(25)***
150~200만원 미만	19.5	15.8	17.3	35.3	4.5	7.5	100(133)	
200~300만원 미만	15.6	19.7	15.0	39.9	3.5	6.4	100(173)	
300만원 이상	12.8	34.0	8.5	35.1	1.1	7.4	100(94)	

** $p < .01$ *** $p < .001$

나. 육아에 대한 조언을 얻는 대상

취업모들이 자녀의 육아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대상은 주로 친구나 동료(33.1%), 또는 부모나 친지 등 집안어른(28%)이었고 인터넷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23.7%). 그 외에 전문가나 서적이 소수 비율을 차지하였고 조언을 주는 대상이 없는 경우는 1.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사무종사자나 서비스종사자 직업군, 그리고 농업종사자,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취업모들은 비교적 친구나 동료에 많이 의존하고 집안어른

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친지 등 인적자원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농산어업에 종사하는 취업모들이 서적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능원이나 단순노무직인 취업모들은 육아문제 의논 대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직업군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근로시간의 차이도 육아문제 의논 대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바, 10시간 이상씩 장시간 근무하는 취업모는 집안어른이나 친구, 동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 5~9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인적자원 이용 이외에 인터넷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표 8 참조).

〈표 8〉 취업모가 의존하는 육아 조연자

구 분	집안 어른	친구 동료	인터넷	전문가	서적	기타	없음	계	단위: %(수)	
									$\chi^2(df)$	
전체	28.0	33.1	23.7	5.7	7.8	0.6	1.2	100(858)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23.9	21.1	33.9	6.4	12.8	0	1.8	100(109)		
기술공, 준전문가	25.9	26.5	30.6	6.8	10.2	0	0	100(147)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7.8	31.8	28.2	3.9	6.7	0.4	1.2	100(255)	na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29.8	38.7	16.9	7.1	6.7	0	0.9	100(225)		
농업, 임업, 어업직	22.2	55.6	0	0	22.2	0	0	100(18)		
기능원, 단순노무직	32.7	42.3	10.6	5.8	1.9	3.8	2.9	100(104)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20.7	29.3	22.0	11.0	14.6	2.4	0	100(82)	36.4(12)***	
5~9시간	26.5	33.1	26.0	5.1	7.4	0.2	1.8	100(623)		
10시간 이상	38.5	34.2	16.1	4.3	5.0	1.2	0.6	100(161)		
수입수준										
무급	25.3	30.3	19.2	6.1	15.2	2.0	2.0	100(99)		
100만원 미만	28.5	36.5	18.5	8.0	5.0	1.0	2.5	100(200)		
100~150만원 미만	31.8	38.2	19.4	4.7	5.3	0	0.6	100(170)	44.7(30)*	
150~200만원 미만	24.8	27.1	33.8	4.5	8.3	0	1.5	100(133)		
200~300만원 미만	26.7	31.4	29.1	3.5	8.7	0	0.6	100(172)		
300만원 이상	31.2	28.0	23.7	6.5	7.5	1.1	2.2	100(93)		

* $p < .05$ ** $p < .01$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다. 육아 분담

부부간 육아 분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간 함께 한다는 응답이 39.7%, 대체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이 32.8%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구분해보면 관리자나 전문가 집단,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및 직업군인, 서비스종사자나 판매직의 경우 대체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보다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으나, 농어업, 임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부인이 맡아서 하거나(55.6%),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경우 부인이 전담한다는 응답(32.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유형별로 보면, 일일 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지만 4시간 이하인 경우 대체로 부인이 맡아서 한다는 응답이 46.8%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수준별로 비교해보면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체로 부인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취업모 가구의 육아분담

단위: %(수)

구 분	부인 전담	대체로 부인	부부 함께	대체로 남편	남편 전담	타인 전담	계	$\chi^2(df)$
전체	13.8	32.8	39.7	1.5	0.4	11.9	100(817)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11.1	39.8	40.7	0.9	0	7.4	100(108)	
기술공, 준전문가	12.9	30.2	46.8	1.4	0	8.6	100(139)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7.3	35.1	43.1	2.4	0	12.1	100(248)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4.4	28.2	36.8	1.0	1.4	18.2	100(209)	na
농업, 임업, 어업직	22.2	55.6	22.2	0	0	0	100(18)	
기능원, 단순노무직	32.6	28.4	28.4	1.1	0	9.5	100(95)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20.8	46.8	29.9	0	0	2.6	100(77)	
5~9시간	13.9	31.6	42.9	0.8	0	10.8	100(595)	na
10시간 이상	9.7	30.5	31.8	5.2	1.9	20.8	100(154)	
수입수준								
무급	22.2	41.4	30.3	0	0	6.1	100(99)	
100만원 미만	22.7	34.3	32.6	1.1	0	9.4	100(181)	
100~150만원 미만	12.3	32.1	43.2	1.9	0	10.5	100(162)	
150~200만원 미만	8.5	34.9	41.9	0.8	0	14.0	100(129)	na
200~300만원 미만	6.7	33.3	44.8	1.8	1.2	12.1	100(165)	
300만원 이상	11.0	17.6	44.0	4.4	1.1	22.0	100(91)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부모가 아닌 타인이 육아를 전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11.9%였다. 취업모이기는 하나 육아를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육아분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항에서 타인이 전담한다는 응답을 보면 거의 100% 남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러한 응답은 서비스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와 10시간이상이 근무시간인 경우,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정부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취업모의 52.6%가 정부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들만이 만족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그 외 직업군은 과반수 이상의 비율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표 10〉 정부 육아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취업모의 만족도

단위: %(수)

구 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계	$\chi^2(df)$
전체	15.5	37.1	32.0	11.8	0.6	3.0	100(859)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22.7	41.8	18.2	12.7	0	4.5	100(110)	74325**
기술공, 준전문가	14.5	44.8	31.7	6.9	0.7	1.4	100(145)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4.8	41.0	34.0	5.1	0.4	4.7	100(256)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6.9	33.8	32.0	16.0	0.4	0.9	100(225)	
농업, 임업, 어업직	11.1	16.7	38.9	33.3	0	0	100(18)	
기능원, 단순노무직	8.6	22.9	41.0	21.0	1.9	0	100(105)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12.2	37.8	20.7	28.0	1.2	0	100(82)	29810**
5~9시간	15.9	37.8	32.3	9.8	0.5	3.7	100(622)	
10시간 이상	15.4	35.2	35.2	11.7	0.6	1.9	100(162)	
수입수준								
무급	18.0	32.0	29.0	20.0	1.0	0	100(100)	74025***
100만원 미만	12.0	30.0	32.5	22.5	0.5	2.5	100(200)	
100~150만원 미만	12.3	33.9	38.6	9.9	1.8	3.5	100(171)	
150~200만원 미만	15.8	37.6	34.6	8.3	0	3.8	100(133)	
200~300만원 미만	19.3	46.8	25.1	4.1	0	4.7	100(171)	
300만원 이상	19.4	45.2	29.0	3.2	0	3.2	100(93)	

** $p < .01$ *** $p < .001$

근로시간에 따라 취업모를 분류한 경우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하는 '5~9시간 근로'집단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4시간 이하 근로자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 비교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다. 1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모의 경우 50.6%가 불만이라고 응답하였고 35.2%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불만도가 5~9시간 근로자보다 오히려 낮았다.

수입별로 비교해보면 ‘만족’이라 응답한 비율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가장 높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포함)의 소득을 가진 취업모가 불만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표 10 참조).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관련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사 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표 11 참조). 초기 투입된 독립변인으로는 취업모 연령, 학력, 근로형태, 일일근로시간, 최초기관이용시기,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는 11개였으나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종모형분석결과 총보육비용, 종사상위치 중 일용근로자, 가구소득대비 보육비비율, 취업모 월소득, 학력 등 5가지였다. 즉, 총보육비용이 적을수록, 종사상위치가 낮을수록, 소득대비 보육비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모의 월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 이 때 설명량(adjusted R²)은 13.8%였다. 그 중에서도 총보육비용 지출과 만족도와의 연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육아비용지원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분	B	표준오차	β	t	누적 R ²
상수	2.830	.071		39.938	
총보육비용	-.002	.000	-.246	-6.482***	.089
종사상위치(일용근로자)	.513	.122	.155	4.191**	.115
가구소득대비 보육비비율	.001	.000	.127	3.251**	.124
취업모 월소득	.000	.000	-.093	-2.424*	.132
3년제 이하 대학	-.216	.095	-.080	-2.176*	.138

* $p < .05$ ** $p < .01$ *** $p < .001$

마.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인지

취업모의 61.1%가 아이돌보미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모든 직업 유형의 절반 이상이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이돌보미 제도 인지가 가장 낮았던 유형은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들이었다(89.5%). 근로 시간에 따르면 일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67.9%), 수입 수준에 따르면 무급인 경우(70.7%) 아이돌보미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표 12 참조).

〈표 12〉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취업모의 인지도

단위: %(수)

구 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계	$\chi^2(df)$
전체	13.2	25.7	61.1	100(861)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13.6	27.3	59.1	100(110)	18.5(10)*
기술공, 준전문가	19.2	30.8	50.0	100(146)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3.6	25.3	61.1	100(257)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1.6	24.6	63.8	100(224)	
농업, 임업, 어업직	5.3	5.3	89.5	100(19)	
기능원, 단순노무직	8.6	23.8	67.6	100(105)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12.3	19.8	67.9	100(81)	2.6(4)
5~9시간	13.8	25.8	60.4	100(623)	
10시간 이상	11.8	28.0	60.2	100(161)	
수입수준					
무급	3.0	26.3	70.7	100(99)	30.0(10)***
100만원 미만	12.5	20.0	67.5	100(200)	
100~150만원 미만	18.1	26.9	55.0	100(171)	
150~200만원 미만	14.4	37.1	48.5	100(132)	
200~300만원 미만	15.2	24.6	60.2	100(171)	
300만원 이상	12.0	20.7	67.4	100(92)	

* $p < .05$ *** $p < .001$

바. 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 정책

취업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 정책으로는 보육비 지원 확대가 38.1%로 가장 높았다. 직업유형별로 보면 농어업 및 임업 종사들의 경우, 수입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취업모가 원하는 정책은 보육다양성의 확대이다. 즉 연장보육, 주말보육, 야간보육 등 취업모의 상황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을 많이 요구하였으며, 이는 관리자 및 전문가 직업 집단, 10시간 이상 근로자, 소득 수준에서는 100~150만원 미만 취업모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양육비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농·임업이나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취업모들이 비교적 많이 요구하였다(표 13 참조).

〈표 13〉 취업모의 희망 육아지원정책

단위: %(수)

구 분	국공립 시설 확충	보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서비 스질 향상	육아 정보 제공	보육 다양성 확대	육아 휴직 확대	탄력 근무	계	$\chi^2(df)$
전체	11.2	38.1	15.6	6.7	0.8	16.3	7.3	3.7	100(860)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11.9	28.4	11.9	5.5	1.8	22.9	13.8	2.8	100(109)	
기술공, 준전문가	1.9	36.7	15.0	8.2	0	16.3	7.5	5.4	100(147)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5.6	33.1	14.8	7.8	0.4	16.0	7.0	5.1	100(257)	54.735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7.6	44.2	15.2	7.1	1.3	14.3	6.7	3.6	100(224)	
농업, 임업, 어업직	5.6	50.0	27.8	0	0	16.7	0	0	100(18)	
기능원, 단순노무직	8.6	47.6	21.0	3.8	1.0	14.3	3.8	0	100(105)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11.0	36.6	20.7	12.2	3.7	9.8	4.9	1.2	100(82)	37.314*
5~9시간	11.9	37.6	15.0	6.8	0.2	16.4	8.5	3.4	100(622)	
10시간 이상	8.7	41.6	14.3	3.7	1.2	18.6	4.3	7.5	100(161)	
수입수준										
무급	6.0	44.0	20.0	9.0	2.0	12.0	4.0	3.0	100(100)	
100만원 미만	11.9	42.3	21.4	5.5	0.5	10.4	5.5	2.5	100(201)	
100~150만원 미만	8.9	40.8	16.6	5.3	0.6	20.7	5.9	0.6	100(169)	61.635*
150~200만원 미만	11.4	35.6	10.6	6.8	2.3	18.9	8.3	6.1	100(132)	
200~300만원 미만	12.9	35.1	11.1	7.0	0.6	18.1	8.8	5.8	100(171)	
300만원 이상	16.3	29.3	9.8	7.6	0	16.3	13.0	7.6	100(92)	

* $p < .05$ ** $p < .01$

사. 주변에 맡길만한 어린이집의 수적 충분성에 대한 인식

주변에 맡길만한 어린이집의 수적 충분성에 대한 취업모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이를 보낼만한 시설이 1~2곳 있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보낼만한 시설이 없다는 응답은 20.4%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는 농어업 및 임업,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들의 경우, 일일 근로시간별로는 10시간 이상인 경우, 수입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아이를 보낼만한 시설이 1~2곳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표 14 참조).

취업모들 중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일수록 주변에 아이를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5>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으로는 취업모의 학력과 종사상 위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사상 위치가 낮을수록

록, 학력이 낮을수록 아이를 보낼만한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 변인의 설명량(R²)은 1.4%에 불과하였다.

〈표 14〉 아이를 맡길 만한 주변 어린이집의 수적 충분성

단위: %(수)

구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20.4	58.5	13.2	7.9	100(858)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22.9	51.4	13.8	11.9	100(109)	
기술공, 준전문가	20.7	57.9	13.8	7.6	100(145)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1.8	54.5	12.8	10.9	100(257)	18.8(15)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9.6	62.5	13.8	4.0	100(224)	
농업, 임업, 어업직	27.8	66.7	5.6	0	100(18)	
기능원, 단순노무직	14.3	66.7	12.4	6.7	100(105)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23.2	58.5	13.4	4.9	100(82)	5.5(6)
5~9시간	19.7	57.5	14.1	8.7	100(623)	
10시간 이상	21.1	63.4	9.3	6.2	100(161)	
수입수준						
무급	26.0	67.0	5.0	2.0	100(100)	
100만원 미만	15.0	60.5	20.0	4.5	100(200)	
100~150만원 미만	16.4	64.3	12.9	6.4	100(171)	46.8(15)***
150~200만원 미만	18.9	53.8	15.2	12.1	100(132)	
200~300만원 미만	22.4	53.5	11.2	12.9	100(170)	
300만원 이상	31.2	51.6	8.6	8.6	100(93)	

*** $p < .001$

〈표 15〉 아이를 맡길만한 어린이집의 충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분	B	표준오차	β	t	R ²
상수	1.958	.724		2.706	
종사상위치					
임시근로자	.279	.099	.186	2.827**	.014
일용근로자	.227	.113	.122	2.013*	
학력					
중졸이하	.342	.183	.105	1.871 ⁺	
고졸	.211	.127	.178	1.657 ⁺	
4년제 대학 이상	.213	.120	.166	1.770 ⁺	

+ $p < .10$, * $p < .05$ ** $p < .01$

아. 낮 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

낮 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은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이 20.5%, 외조부모 18.1%, 친조부모 17.3%로 나타났다.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단순노무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표 16〉 낮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수)

구분	부	모	아이의부모의 형제	형제	친조 부모	외조 부모	친 인척	비 혈연	기관에 맡김	계	$\chi^2(df)$
전체	2.0	20.5	3.4	0.9	17.3	18.1	0.7	3.5	33.4	100(860)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0.9	10.9	2.7	1.8	21.8	25.5	0	9.1	27.3	100(110)	
기술공, 준전문가	2.7	26.7	2.1	0.7	13.0	18.5	0.7	5.5	29.5	100(146)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3.5	6.3	2.3	1.2	21.9	19.9	1.2	3.5	39.8	100(256)	137.4(40)***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0.9	28.9	4.0	0.4	16.9	17.3	0.4	0.9	30.2	100(225)	
농업, 임업, 어업직	0	72.2	5.6	0	5.6	0	0	5.6	11.1	100(18)	
기능원, 단순노무직	1.0	29.5	6.7	1.0	10.5	10.5	1.0	0	40.0	100(105)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2.4	73.5	1.2	1.2	3.6	7.2	0	1.2	8.4	100(83)	178.8(16)***
5~9시간	2.2	15.6	3.9	1.0	17.8	17.5	0.6	4.0	37.2	100(623)	
10시간 이상	0.6	11.9	2.5	1.3	23.1	25.6	0.6	2.5	31.9	100(160)	
수입수준											
무급	1.0	57.6	3.0	0	14.1	9.1	0	1.0	14.1	100(99)	
100만원 미만	1.5	35.0	5.5	1.0	8.5	11.5	0	0.5	36.5	100(200)	
100~150만원 미만	3.5	11.7	5.3	0.6	17.0	15.2	1.2	1.8	43.3	100(171)	264.1(40)***
150~200만원 미만	2.3	12.1	1.5	0	25.0	20.5	0.8	4.5	32.6	100(132)	
200~300만원 미만	0.6	5.3	1.8	0.6	21.6	26.3	1.2	4.1	38.6	100(171)	
300만원 이상	3.2	4.3	2.2	4.3	21.5	29.0	0	14.0	21.5	100(93)	

*** $p < .001$

직업유형별로 보면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들은 제외하고는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돌본다는 응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및 임업 종사들의 경우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이 72.2%로 매우 높았고,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일일 근로시간에 따르면 4시간 이하인 경우 73.5%가 어머니가 주로 돌본다고 응답하였고, 5시간 이상인 경우 기관에 맡긴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가 돌본다는 응답비율도 높았다.

수입수준에 따르면 무급과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무급인 경우는 57.6%가 낮 시간 동안 주로 어머니가 돌보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9%가 외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3. 취업모 특성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가. 최초이용기관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초 이용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68%로 가장 많았고, 기관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22.3%로 나타났다. 최초 육아지원기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를 직업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입 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7〉 최초 이용 육아지원기관

단위: %(수)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학원	경험 없음	계	$\chi^2(df)$
전체	68.0	7.6	0.8	1.0	22.3	100(860)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57.8	10.1	0	1.8	30.3	100(109)	
기술공, 준전문가	68.5	3.4	0.7	1.4	26.0	100(146)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65.5	8.1	0.4	0.8	25.2	100(258)	36.0(20)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71.0	9.4	1.3	0.9	17.0	100(224)	
농업, 임업, 어업직	55.6	16.7	0	0	27.8	100(18)	
기능원, 단순노무직	80.0	3.8	1.9	1.0	12.4	100(105)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67.1	8.5	0	1.2	23.2	100(82)	4.5(8)
5~9시간	68.1	7.1	0.8	1.3	22.4	100(624)	
10시간 이상	68.3	8.7	1.2	0	21.7	100(161)	
수입수준							
무급	66.7	13.1	1.0	1.0	18.2	100(99)	
100만원 미만	82.4	5.0	1.0	0.5	10.6	100(199)	
100~150만원 미만	73.1	5.8	1.8	1.2	17.5	100(171)	70.0(20)***
150~200만원 미만	63.6	7.6	0	0	28.8	100(132)	
200~300만원 미만	60.8	7.0	0	0.6	31.6	100(171)	
300만원 이상	49.5	10.8	1.1	4.3	34.4	100(93)	

*** $p < .001$

나. 최초이용시기

취업모 가정에서 육아지원기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평균 자녀가 25.7개월(표준편차 12.81) 정도일 때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소값은 2개월로 생후 2개월 시기부터 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직업이나 수입수준, 근로시간 등 모든 변인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여기에 실지는 않았다.

다. 현재 이용기관

현재 이용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60.6%, 유치원 25.0%, 기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p.107)에 의하면 영유아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이 41.3%이고 유치원 이용률이 19.4%인 점에 비추어볼 때,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전체 평균보다 32%가량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중에는 민간어린이집 이용비율이 41%로 가장 높고 국공립시설 이용 비율은 11.6%로 나타났다.

〈표 18〉 현재 이용 육아지원기관

단위: %(수)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계	$\chi^2(df)$
	국 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국 공립	사립	학원	기타		
전체	11.6	7.2	41.0	7.7	2.8	0.3	7.8	17.2	3.3	1.1	100(653)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10.7	6.7	36.0	5.3	5.3	0	8.0	21.3	6.7	0	100(75)	
기술공, 준전문가	12.7	7.8	44.1	15.7	1.0	0	2.9	9.8	4.9	1.0	100(102)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0.0	6.9	38.9	8.4	3.7	0	10.0	19.5	2.1	0.5	100(190)	173.9(50)***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2.0	6.5	38.0	6.0	1.1	0	9.2	21.7	4.3	1.1	100(184)	
농업, 임업, 어업직	15.4	0	46.2	0	0	15.4	15.4	7.7	0	0	100(13)	
기능원, 단순노무직	13.5	10.1	51.7	3.4	4.5	0	4.5	9.0	0	3.3	100(89)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13.1	9.8	42.6	6.6	0	0	13.1	11.5	3.3	0	100(61)	29.6(18)
5~9시간	12.9	7.6	39.7	7.8	2.3	0.4	7.0	18.1	3.1	1.0	100(474)	
10시간 이상	5.6	4.8	44.4	9.5	5.6	0	8.7	15.9	4.0	1.6	100(126)	

(표 18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계	χ ² (df)
	국 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국 공립	사립	학원	기타		
수입수준												
무급	10.5	7.9	34.2	7.9	0	26	9.2	22.4	3.9	1.3	100(76)	
100만원 미만	15.1	10.1	46.9	7.8	1.7	0	7.3	8.9	1.7	0.6	100(179)	
100~150만원 미만	9.5	6.6	45.3	6.6	0	0	7.3	20.4	2.2	2.2	100(137)	92.8(40)**
150~200만원 미만	8.7	4.4	42.4	12.0	3.3	0	8.7	16.3	3.3	1.1	100(92)	
200~300만원 미만	11.3	6.0	36.5	9.6	5.2	0	6.1	20.0	5.2	0	100(115)	
300만원 이상	11.7	6.7	28.3	1.7	8.3	0	11.7	23.3	6.7	1.7	100(60)	

** p < .01 *** p < .001

직업 유형별로 보면 모든 직업 유형들이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관리자 및 전문가 종사자, 사무종사자 및 직업군인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들은 사립유치원을,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는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높았다.

일일 근로시간에 따르면 4시간 이하인 경우 민간어린이집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5시간 이상인 경우 민간어린이집 다음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수입수준별로 비교해보면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순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났다.

라. 서비스 이용 요일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일을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82%로 매우 높았고 격주로 토요일에도 이용한다는 비율은 9.2%였다.

토요일 서비스 이용의 비율이 높은 직업은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기술공 또는 준전문가직종이었다. 각각 23.1%와 21.3%, 21.6%가 격주 또는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표 19 참조).

일일근로시간에 따라 비교해보면 10시간이상의 경우에 토요일 이용률이 높았고, 수입수준에서는 100만원 미만 취업모집단의 20%이상이 토요일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육아지원서비스의 주간 이용 유형

단위: %(수)

구분	월요일~ 토요일 (매주)	월요일~ 토요일 (격주)	월요일~ 금요일 매일	일주일에 3-4번	계	$\chi^2(df)$
전체	8.3	9.2	82.0	0.5	100(651)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2.7	12.2	85.1	0	100(74)	33.1(15)**
기술공, 준전문가	6.9	14.7	75.5	2.9	100(102)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6.9	9.0	84.1	0	100(189)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1.4	4.3	84.2	0	100(184)	
농업, 임업, 어업직	7.7	15.4	76.9	0	100(13)	
기능원, 단순노무직	11.2	10.1	78.7	0	100(89)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13.3	0	83.3	3.3	100(60)	29.2(6)***
5~9시간	6.1	10.1	83.5	0.2	100(474)	
10시간 이상	14.4	10.4	75.2	0	100(125)	
수입수준						
무급	5.2	6.5	88.3	0	100(77)	14.1(15)
100만원 미만	11.8	10.1	77.0	1.1	100(178)	
100~150만원 미만	8.8	10.9	80.3	0	100(137)	
150~200만원 미만	8.6	8.6	81.7	1.1	100(93)	
200~300만원 미만	8.8	7.0	84.2	0	100(114)	
300만원 이상	1.7	10.0	88.3	0	100(60)	

** $p < .01$ *** $p < .001$

마. 이용기관의 시설설비 만족도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만족도를 취업특성별로 비교해 보았으나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시설설비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다음의 <표 20>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설설비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62.8%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보통이 29.9%였고 7.2%는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1/3정도는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수입수준별 취업모 집단의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월수입이 높은 집단(200만원 이상)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취업모 집단에서 만족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0〉 육아지원기관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

단위: %(수)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chi^2(df)$
전체	0.4	6.8	29.9	51.7	11.1	100(458)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2.1	10.6	27.7	44.7	14.9	100(47)	
기술공, 준전문가	1.2	8.3	25.0	59.5	6.0	100(84)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0	6.3	35.2	45.3	13.3	100(128)	21.7(20)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0	7.6	31.4	49.2	11.9	100(118)	
농업, 임업, 어업직	0	0	12.5	62.5	25.0	100(8)	
기능원, 단순노무직	0	2.7	27.4	61.6	8.2	100(73)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0	9.3	25.6	51.2	14.0	100(43)	
5~9시간	0.6	5.1	31.6	50.9	11.7	100(332)	9.8(8)
10시간 이상	0	12.6	24.1	55.2	8.0	100(87)	
수입수준							
무급	0	6.8	38.6	43.2	11.4	100(44)	
100만원 미만	0	4.8	28.1	58.2	8.9	100(146)	
100~150만원 미만	0	5.5	36.3	47.3	11.0	100(91)	43.8(20)**
150~200만원 미만	0	7.4	27.9	58.8	5.9	100(68)	
200~300만원 미만	0	10.1	24.1	48.1	17.7	100(79)	
300만원 이상	5.7	11.4	20.0	42.9	20.0	100(35)	

** $p < .01$

바. 이용 기관 시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육아지원서비스 시간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시작시간의 경우 전체의 87.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관리자/전문가 집단과 기술공/준전문가 집단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농·임·어업 종사자들의 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21 참조).

시설이 마치는 종료시간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72%정도가 만족하고 있었다. 25.5%는 마치는 시간을 너무 이르다고 응답하였다. 비교적 서비스업이나 판매직 종사자, 10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100~150만원 사이 수입수준을 가진 취업모들이 어린이집이 너무 빨리 끝난다는 의견을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표 21〉 육아지원기관 시작시간 만족도

단위: %(수)

구분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계	$\chi^2(df)$
전체	87.4	4.9	7.7	100(652)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81.1	9.5	9.5	100(74)	22.6(10)*
기술공, 준전문가	81.6	8.7	9.7	100(10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88.8	0.5	10.6	100(188)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90.8	4.3	4.9	100(184)	
농업, 임업, 어업직	92.3	7.7	0	100(13)	
기능원, 단순노무직	88.9	6.7	4.4	100(90)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85.5	11.3	3.2	100(62)	9.3(4)
5~9시간	87.8	3.8	8.4	100(474)	
10시간 이상	85.6	7.2	7.2	100(125)	
수입수준					
무급	94.8	1.3	3.9	100(77)	13.3(10)
100만원 미만	88.2	6.7	5.1	100(178)	
100~150만원 미만	82.5	5.8	11.7	100(137)	
150~200만원 미만	90.3	5.4	4.3	100(93)	
200~300만원 미만	86.0	4.4	9.6	100(114)	
300만원 이상	86.7	3.3	10.0	100(60)	

* $p < .05$

〈표 22〉 육아지원기관 종료시간 만족도

단위: %(수)

구분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계	$\chi^2(df)$
전체	72.0	25.5	2.4	100(654)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80.0	16.0	4.0	100(75)	15.4(10)
기술공, 준전문가	70.9	25.2	3.9	100(10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74.1	23.2	2.6	100(189)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70.1	29.3	0.5	100(184)	
농업, 임업, 어업직	92.3	7.7	0	100(13)	
기능원, 단순노무직	63.3	33.3	3.3	100(90)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73.8	26.2	0	100(61)	3.4(4)
5~9시간	72.8	24.7	2.5	100(474)	
10시간 이상	66.9	29.8	3.2	100(124)	
수입수준					
무급	73.7	25.0	1.3	100(76)	6.3(10)
100만원 미만	71.5	25.7	2.8	100(179)	
100~150만원 미만	68.6	28.5	2.9	100(137)	
150~200만원 미만	78.5	19.4	2.2	100(93)	
200~300만원 미만	67.3	31.0	1.8	100(113)	
300만원 이상	76.7	20.0	3.3	100(60)	

4. 취업모 특성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현황

가. 보육료/교육비 국가보조금 수혜 여부 및 이유

1) 수혜 여부

보육료/교육비 국가보조금 수혜 여부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 가정 전체의 44.3%가 혜택을 받지 않았고, 일부 감면은 28.8%, 전액 면제는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 보면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전액 면제가 46.2%와 48.3%로 가장 높았다.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의 경우 일부 감면 대상까지 합치면 84.7%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일일 근로 시간별로 보면 4시간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가 38.3%로 높았다. 수입 수준별로 비교해보면 100~15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면제가 35%로 높았고, 100만원 미만은 전액 면제와 일부 감면이 39.9%의 동일한 비율로 높았다.

〈표 23〉 국가보조금 수혜 현황

					단위: %(수)
구분	전액 면제	일부 감면	혜택 없음	계	$\chi^2(df)$
전체	27.0	28.8	44.3	100(653)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2.7	24.3	73.0	100(74)	
기술공, 준전문가	20.4	35.0	44.7	100(10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2.8	24.3	52.9	100(189)	77.5(10)***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33.0	28.6	38.4	100(185)	
농업, 임업, 어업직	46.2	38.5	15.4	100(13)	
기능원, 단순노무직	48.3	33.7	18.0	100(89)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38.3	26.7	35.0	100(60)	
5~9시간	23.8	28.9	47.3	100(474)	8.7(4)
10시간 이상	32.3	28.2	39.5	100(124)	
수입수준					
무급	31.2	28.6	40.3	100(77)	
100만원 미만	39.9	39.9	20.2	100(178)	
100~150만원 미만	35.0	32.1	32.8	100(137)	122.5(10)***
150~200만원 미만	19.4	24.7	55.9	100(93)	
200~300만원 미만	8.8	18.4	72.8	100(114)	
300만원 이상	8.5	13.6	78.0	100(59)	

*** $p < .001$

2) 수혜 이유

보육료/교육비 국가보조금 수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기타저소득층지원’에 해당된다는 이유가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소득에 따른 지원 제도들의 수혜자가 많이 여기에 응답한 듯하다.

직업유형별로 보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 종사자,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일일근로시간별로는 4시간 이하인 경우, 수입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기타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취업모 가정의 경우는 57%가량이 농어민 보육료지원의 혜택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었고, 14.3%가 전혀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다. 서비스직 및 판매직 종사자의 경우는 특이하게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에서는 취업모가 100만원 미만 수입을 가진 경우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표 24〉 국가보조금 수혜 근거

단위: %(수)

구분	기초생활	모·부자가정	차상위	기타저소득	만5세 무상	세번째 자녀	두장애 아동	장애 아동	동아민 자녀	기타	비해당	계	$\chi^2(df)$
전체	2.5	2.1	8.6	22.2	8.9	3.1	4.6	0.5	1.8	1.5	44.3	100(653)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0	0	2.7	10.8	5.4	5.4	1.4	0	0	1.4	73.0	100(74)	
기술공, 준전문가	1.0	2.9	3.9	32.0	5.8	1.9	3.9	0	0	3.9	44.7	100(10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1	2.6	6.3	20.1	6.9	1.1	6.9	0.5	0.5	1.1	52.9	100(189)	358.5(50)***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4.3	1.1	9.7	19.5	14.1	3.8	5.4	1.1	1.6	1.1	38.4	100(185)	
농업, 임업, 어업직	0	0	7.1	21.4	0	0	0	0	57.1	0	14.3	100(14)	
기능원, 단순노무직	5.7	4.5	21.6	30.7	10.2	5.7	2.3	0	0	1.1	18.2	100(88)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11.7	1.7	10.0	25.0	8.3	1.7	1.7	0	5.0	0	35.0	100(60)	49.6(20)***
5~9시간	1.5	2.7	6.5	21.9	8.0	2.7	5.5	0.4	1.3	2.1	47.3	100(474)	
10시간 이상	1.6	0.8	15.4	21.1	11.4	4.1	2.4	0	2.4	0.8	39.8	100(123)	
수입수준													
무급	2.6	0	2.6	24.7	13.0	3.9	2.6	0	9.1	1.3	40.3	100(77)	
100만원 미만	6.7	3.9	15.7	33.1	8.4	3.4	6.2	1.1	0.6	0.6	20.2	100(178)	
100~150만원 미만	1.5	4.4	11.9	22.2	15.6	3.0	7.4	0	0	0.7	33.3	100(135)	216.0(50)***
150~200만원 미만	0	2.2	4.4	20.9	8.8	1.1	3.3	0	1.1	1.1	57.1	100(91)	
200~300만원 미만	0	0	3.5	13.0	3.5	0.9	1.7	0.9	0	4.3	72.2	100(115)	
300만원 이상	0	0	1.7	6.8	0	6.8	1.7	0	3.4	1.7	78.0	100(59)	

*** $p < .001$

나. 보육/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체감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대해 체감하는 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57.3%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일일 10시간이상 근무해야 하는 직업인 경우의 취업모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비교해보면, 월 150~2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취업모의 경우 66.7%가 비용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부담 체감도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득수준과 부담감 정도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25〉 보육/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 정도

단위: %(수)

구분	매우 부담	부담 되는 편	적당	부담 되지 않음	전혀 부담 안됨	비해당	계	$\chi^2(df)$
전체	14.4	42.9	20.7	10.9	5.1	6.0	100(651)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14.9	45.9	20.3	10.8	6.8	1.4	100(74)	
기술공, 준전문가	9.8	52.0	18.6	12.7	2.9	3.9	100(102)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14.8	39.7	24.3	12.2	3.7	5.3	100(189)	34.8(25)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17.4	40.8	19.0	8.7	6.5	7.6	100(184)	
농업, 임업, 어업직	28.6	28.6	0	7.1	7.1	28.6	100(14)	
기능원, 단순노무직	10.2	43.2	22.7	11.4	5.7	6.8	100(88)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9.8	45.9	13.1	19.7	4.9	6.6	100(61)	
5~9시간	14.3	43.0	22.8	11.2	4.2	4.4	100(474)	23.9(10)**
10시간 이상	16.1	40.3	16.9	6.5	8.1	12.1	100(124)	
수입수준								
무급	24.0	42.7	14.7	10.7	2.7	5.3	100(75)	
100만원 미만	11.8	45.5	18.0	9.6	6.7	8.4	100(178)	
100~150만원 미만	15.9	36.2	23.9	14.5	1.4	8.0	100(138)	37.7(25)*
150~200만원 미만	17.2	49.5	17.2	6.5	5.4	4.3	100(93)	
200~300만원 미만	12.3	43.0	25.4	9.6	5.3	4.4	100(114)	
300만원 이상	5.0	40.0	26.7	18.3	8.3	1.7	100(60)	

* $p < .05$ ** $p < .01$

다. 취업특성별 육아지원기관이용 비용 비교

취업을 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은 월평균 216,200원(표준편차 168,400원)으로 나타났다. 최대값은 1,848,000이었다.

취업 특성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표 26참조), 관리자나 전문가 직업 유형은 297,800원으로 가장 비용이 높았고 농림어업 종사자는 115,200원으로 가장 낮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근로시간별로는 하루 5~9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취업모가 228,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육아지원기관이용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준별로는 무급집단을 제외하는 수입이 많을수록 더욱 많은 비용을 기관이용에 지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입이 월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 교육/보육 비용은 315,900원(표준편차 182,3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이었다.

〈표 26〉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단위: 천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F
전체	216.2	168.4	0	1,848	659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297.8	179.7	0	1,080	74	10.33***
기술공, 준전문가	217.7	138.6	0	600	103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37.4	155.4	0	841	189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205.7	196.3	0	1,848	185	
농업, 임업, 어업직	115.2	123.7	0	364	13	
기능원, 단순노무직	132.4	105.2	0	466	90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154.6	157.3	0	1,000	61	6.17**
5~9시간	228.8	171.3	0	1,848	474	
10시간 이상	198.5	154.8	0	619	124	
수입수준						
무급	204.5	149.8	0	740	77	20.13***
100만원 미만	151.9	178.3	0	1,848	178	
100~150만원 미만	175.7	129.0	0	610	137	
150~200만원 미만	235.7	140.7	0	730	93	
200~300만원 미만	304.6	157.1	0	1,000	114	
300만원 이상	315.9	182.3	0	1,080	60	

** $p < .01$ *** $p < .001$

라. 가구 소득 대비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의 비율

취업모 가구의 총소득 대비 영유아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을 보면, 평균 7.1%(표준편차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는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취업모 가구가 9%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종사직이나 판매직이 8%로 다음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의미는 없는 정도였다.

취업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소득 대비 육아서비스비용의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만원 미만 집단이 6.8~7.3%로 비교적 높았고(무급집단 제외) 표준편차를 고려해 보았을 때 200~300만원 미만 집단이 6.5%로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집단의 경우는 4.6%로 현저히 낮았다. 즉,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수입이 많은 가구일수록 가구소득대비 육아지원기관 이용료의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27〉 가구소득대비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의 비율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F
전체	7.1	5.8	0	58	635	
직업유형						
관리자, 전문가	6.5	5.0	0	24	73	1.8
기술공, 준전문가	6.8	4.5	1	25	101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6.5	4.2	0	29	182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8.0	7.5	0	58	177	
농업, 임업, 어업직	9.0	5.8	0	16	11	
기능원, 단순노무직	7.5	6.4	0	29	87	
일일근로시간						
4시간 이하	6.4	5.3	0	23	59	0.61
5~9시간	7.1	5.7	0	58	459	
10시간 이상	7.4	6.2	0	31	117	
수입수준						
무급	10.0	8.7	0	58	72	6.40**
100만원 미만	7.1	6.3	0	34	170	
100~150만원 미만	6.8	4.9	0	31	131	
150~200만원 미만	7.3	5.2	0	25	92	
200~300만원 미만	6.5	3.9	0	29	113	
300만원 이상	4.6	3.1	1	21	58	

*** $p < .001$

IV.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의 원 자료를 재분석하여 취업모의 특성별로 육아 실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자녀 양육 실태를 취업모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크고, 육아비용의 어려움에 대한 반응은 소득과 반비례하였다. 가정 내 육아분담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전문·관리직에 가까울수록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육아지원정책으로 소득이 높은 취업모일수록 국공립시설 확충과 보육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소득이 낮은 경우일수록 보육비 지원 확대와 양육비 현금 지원에 대한 희망이 컸다. 소득이 높고 전문직일수록 자녀를 맡길만한 곳이 없다는 인식이 많았고 조부모에 양육을 의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들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소득이 낮고 근로시간이 길며 단순노무직에 가까울수록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였다. 취업모의 18%정도가 토요일에도 교육·보육을 이용하고 있고, 수입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육아지원기관의 시설설비에 대해 불만족이 컸고, 단순노무직·기능원 가구, 그리고 1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모 가구가 저소득층 교육·보육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은 평균 216,000원 정도이고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은 더 커졌다. 가구소득대비 육아서비스 이용 비용의 비율에서는 평균 7.1%였고, 직업유형 중 농·임·어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육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소득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가까운 직업일수록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크고 어린이집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가 다양화되기를 원한다. 이같은 의식은 자녀가 연령이 높아지면 유치원을 보내는 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도 나왔다시피 소득이 높은 직업군이 유치원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이용률을 유아에게서도 높이고 중산층 이상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보육료 및 프로그램의 자율화를 도입해 볼 만하다. 그러나 거기에도 일정의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전체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맞벌이 자녀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해 수당을 제공하고자는 정책 방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가정내 육아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취업모 중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문직, 관리직 취업모일수록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높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경우나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본인이 일을 하면서 직접 육아를 책임지거나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조부모 이용 비율이 낮다. 최근 정부는 일하는 자녀 대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육아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서 논의한 바 있는 어린이집 다양화를 통한 질제고가 이루어진다면 중산층 이상의 시설 이용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조부모 노동력이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많이 있는 현상(조부모 의지)에 대해 정부가 특별히 비용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져 보인다.

반면, 조부모 노동력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취업모에 대해,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아이를 돌보면서, 또는 방치하면서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다)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질 좋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의 아이돌보미 인지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보육료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을 겨냥한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상업지역, 관광지 등의 어린이집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는 주말 및 야간 보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대체교사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보면, 취업모 중 서비스 종사자나 판매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거나, 10시간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최근 수행된 연구(김은설 외, 2010)에 의하면, 관광지역에 세워진 어린이집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많아 주말보육 수요가 매우 높았으나 시설 사정상 실시하고 있지 않아 아예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는 취업모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 및 수요자 사정에 따라 주말보육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대체교사를 집중 투입하여 어린이집 이용에 편리함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http://www.mest.go.kr/>.
-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 김민정(2006).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98-499.
- 김은설·이윤진·최진·조혜주(2010).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도미향(2006). 맞벌이 가족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77-92.
- 문혁준(2009). 아동이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어머니의 취업 유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0(2), 57-69.
- 방경숙(2004).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및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과 건강관련 변인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0(2), 217-224.
- 서문희·김은설·장혜경·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고용노동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논문접수 2012년 9월 29일 / 수정본 접수 2012년 11월 27일 / 게재 승인 12월 17일

·교신저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메일 eskim@kicce.re.kr

Abstract

A Study on the Use and the Cost of Child Care Services in Families with Working Mothers

Eunseol Kim

This paper intended to show how Korean working mothers in various statuses, income levels, and degree of working hours are caring for their young children by re-analyzing the data of the '2009 Korean Child Care Study'. The subjects were 866 families with working mothers and young children aged five and und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mothers who have higher income and higher positions in their workplace show lower satisfaction with the national policies on child care and with the service of child care centers, than mothers with lower income and lower positions. High-income mothers demand that public child care centers are more available built and more various services are offered, while low-income mothers ask for more financial support such as child care fees, benefit, and subsidies. Mothers whose working hour is longer and position is lower are likely to use child care centers more than kindergartens and show less satisfaction with the facilities and equipments of the centers. The fee for the child care service is 216,000 won a month, 7.1% of the family's monthly income. Eighteen percentage of the working mothers go to work on weekends.

Based on the results, three suggestions were made for policymaking: a) the government loosen the regulation of child care service fee that is unified at present, ; b) mother's child rearing at home, especially in low income families during the infancy, be encouraged and supported; and c) weekends and night services be more provided with tourism and small business-related working mothers.

Key words: working mothers, characteristics of jobs, using child care service, child care service fee